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여의도순복음성북교회

YOIDO FULL GOSPEL SEONGBUK CHURCH

“듣는 마음” 책자 소개

‘듣는 마음’이란

말씀을 선언하는 것이 곧 기도입니다. “듣는 마음”은 말씀을 소리내어 읽으며, 내 안에 임한 말씀을 반복적으로 선포하며, 말씀으로 기도하는 영성 훈련입니다.

큐티(QT, Quiet Time)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라면, “듣는 마음”은 성경을 소리내어 읽고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듣는 마음”을 통해 성경을 읽어가고, 말씀에 집중된 기도를 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가길 소망합니다.

‘듣는 마음’ 활용법

예수님은 이천년 전에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듯, 오늘날에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실재가 되도록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주기도문으로 기도하기

(마태복음 6:9-10) 9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10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말씀을 내게 맞추려 하지 말고, 나를 하나님께 맞춰야 합니다. 말씀을 내가 이해하고, 내게 적용하려고 하기보다, 기도를 통하여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맞추니다. 주기도문의 내용을 통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며,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2.말씀을 소리내어 읽기

(시편 1:1-2) 1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2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묵상은 조용하게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묵상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리듯(사31:4),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중얼거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술로 소리내어 고백하며, 선언하고 선포하듯이 읽으십시오.

3.말씀으로 기도하기

(베드로전서 2:1-2) 1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2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기도는 말씀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말씀읽기는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에 대한 선언입니다. 갓난 아기들과 같이 신령한 젖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선언하십시오. 나아가 말씀읽기를 통해 내 안에 들어온 말씀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선포하며 기도하십시오.

말씀읽기와 기도는 결코 나뉘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읽혀지는 순간, 그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 역사하여, 우리의 삶의 실재가 되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듣는 마음”을 통해 말씀을 읽어가며 말씀으로 기도하여, 말씀의 역사를 경험해 보십시오.

블레싱 타임 : 듣는 마음 ·4

오늘의 성경읽기

블레싱 타임 : 주간 메시지 나눔 ·128

10월 4일 공과 - 사랑 받는 자

10월 11일 공과 -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삶

10월 18일 공과 - 세상 나라를 다스리시는 거룩한 순찰자

10월 25일 공과 -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선교사 열전 ·136

하디 선교사(1)

에베소서 2:1-22 은혜로 구원 받아 한 몸 된 교회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인 구원

1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2 그 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3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던니 4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5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6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7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8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9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10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교회: “하나, 한 몸, 한 새 사람”

11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 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12 그 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13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14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 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15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16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 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17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18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9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20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잇돌이 되셨느니라 21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22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말씀으로 기도하기 빈칸에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해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열왕기상 5장

5 야훼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네 자리에 오르게 할 네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에스겔 35장

11 그러므로 주 야훼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그들을 미워하여 노하며 질투한 대로 내가 네게 행하여 너를 심판할 때에 그들이 나를 알게 하리라 12 네가 이스라엘 산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저 산들이 황폐하였으므로 우리에게 넘겨 주어서 삼키게 되었다 하여 욕하는 모든 말을 나 야훼가 들은 줄을 네가 알리도다

시편 85편

1 야훼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 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2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셀라) 3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에베소서 2:1-22

은혜로 구원 받아 한 몸 된 교회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인 구원(1-10절)

성부 하나님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살리셨습니다(1절). 우리는 구원 받기 전에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며, 육체의 욕심을 따라 마음의 원하는대로 행하던 진노의 자식들이었습니다(2-3절).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크신 자비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4절). 죄악으로 인해 영적 죽음 가운데 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5절),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신 것입니다(6절).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5절). 이 모든 은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로 베풀어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장차 올 모든 세대에게 드러내 보이시기 위함입니다(7절).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인함이 아니요,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 즉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8절). 그렇기에 그 누구도 자신의 구원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9절). 우리는 이제 이 구원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구원의 목적인 선한 일과 거룩한 삶을 마땅히 살아내야 합니다(10절).

교회 : “하나, 한 몸, 한 새 사람”(11-22절)

유대인과 이방인은 율법이라는 거대한 막힌 담을 사이에 두고 원수 관계였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언약백성 유대인은, 언약 밖에 있어 하나님 없이 살던 이방인과 결코 사귄 수 없는 관계였습니다(11-12절).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들 사이에 막힌 담이 무너졌습니다(13-14절). 구원받은 교회, 즉 유대인과 이방인의 연합으로 이루어진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14절), 한 새 사람(15절), 한 몸(16절)이 된 것입니다. 하나 된 교회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16절)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동일한 시민이요(19절), 하나님의 가족(권속)이며(19절),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21절)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 갑니다(22). 이 모든 은혜는 오직 예수님께서 교회의 모퉁잇돌이 되셨기에 가능한 일입니다(20절).

✎ 오늘 만난 하나님, 감사와 회개할 것, 오늘의 헌신(순종)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정리해 보세요 ✎

✎ 오늘의 기도 ✎

에베소서 3:1-21 밝히 드러난 비밀, “교회”

하나님의 구원 경륜의 비밀

1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2**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3**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4**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5**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6**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7**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8**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9**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10**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11**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12**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13**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교회를 향한 간절한 기도

14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15**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16**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17**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18**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19**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20**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21**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말씀으로 기도하기 빈칸에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해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열왕기상 6장

11 야훼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12**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यो **13**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에스겔 36장

26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27**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시편 86편

1 야훼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2**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며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3**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에베소서 3:1-21

밝히 드러난 비밀,
“교회”

하나님의 구원 경륜의 비밀(1-13절)

하나님께서도 사도 바울에게 비밀을 계시로 알려주셨습니다. 그 비밀은 바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 즉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것입니다(엡1:10). 다시 말해 하나님의 구속의 때가 찬 경륜(2절/은혜의 경륜)이 하나님의 때에 온 세상에 밝히 드러나는 것입니다(엡1:9). 구약시대에는 그 비밀을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려주지 않으셨지만, 지금(신약시대)은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성령으로 계시해주셨습니다(5절). 그 비밀은 이방인들도 복음을 믿음으로 유대인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한 몸(지체)이 되며, 약속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6절). 바로 이 일을 위해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일꾼)가 되었습니다(7절). 이제 복음이 온 열방에 전파되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영원 전부터 감추어져 있는 비밀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모두에게 밝히 드러내셨습니다(9절). 그것은 이제 교회를 통해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리시려는 것입니다(10절).

교회를 향한 간절한 기도(14-21절)

이 놀라운 구속의 비밀을 알게 된 바울은, 이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15절).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시오며(16절),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17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18절),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케 하옵소서(19절).” 이 기도야말로 우리가 교회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 할 기도제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교회를 위해 간구한 것에 더욱 넘치도록 능히 역사해주실 것입니다(20절).

✧ 오늘 만난 하나님, 감사와 회개할 것, 오늘의 헌신(순종)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정리해 보세요 ✧

✧ 오늘의 기도 ✧

에베소서 4:1-16 교회의 일치와 성장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신 성령 하나님

1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2** 모든 겉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3**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4**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5**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6**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각 사람에게 주어진 은사

7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8**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9**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10**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11**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12**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13**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14**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15**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16**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말씀으로 기도하기 빈칸에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해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열왕기상 7장

51 솔로몬 왕이 야훼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야훼의 성전 공간에 두었더라

에스겔 37장

10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시편 88편

13 야훼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에베소서 4:1-16

교회의 일치와 성장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신 성령님(1-6절)

본문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교회의 일치와 성장을 위해 어떻게 행동해야 하며, 주신 은사와 직분을 통해 교회를 어떻게 세워 나가야 하는지 전합니다. 먼저 바울은 자신을 주 안에서 갇힌 자로 소개하며 에베소 교인들에게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권면합니다(2절). 그리고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합니다(3절). 교회는 한 몸으로서 한 성령, 한 소망 안에서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4절). 바울은 한 주, 한 믿음, 한 세례를 강조하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신 분임을 강조합니다(5-6절). 그러므로 교회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도록 한 마음 한 뜻 되어 하나 됨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각 사람에게 주어진 은사(7-16절)

그리스도께서 각 사람에게 은혜를 주셔서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를 삼으셨습니다(7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감으로써(12절) 믿음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기 위함입니다(13절). 또한 신앙이 자라갈수록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14절). 성도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가야 합니다(15절). 결국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서 모든 은혜(은사)를 각 마디(직분자)를 통하여 도움(공급) 받음으로써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져 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구원 계획의 성취요,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놀라운 뜻이자 구원의 목적입니다.

✠ 오늘 만난 하나님, 감사와 회개할 것, 오늘의 헌신(순종)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정리해 보세요 ✠

✠ 오늘의 기도 ✠

에베소서 5:1-20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지침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1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 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2**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3**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4**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5**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6**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7**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8**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9**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10**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11**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12**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13**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14**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라

빛의 자녀로서 지혜롭게 행하라

15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16**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17**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18**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19**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20**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말씀으로 기도하기 빈칸에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해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열왕기상 8장

29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 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에스겔 38장

23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야훼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시편 89편

19 그 때에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를 높였으되

에베소서 5:1-20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지침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1-14절)

본문은 빛의 자녀인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지에 대해 중요한 지침을 줍니다. 먼저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권면합니다(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 가운데 행해야 합니다(2절).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 그리고 탐욕은 성도에게 합당하지 않습니다(3절). 사람의 헛된 말에 속지 말고,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4절). 우리는 한 때 어둠 가운데 행했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입니다(8절). 그러므로 빛의 자녀로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행하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9-10절).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빛을 열방에 드러내야 합니다.

빛의 자녀로서 지혜롭게 행하라(15-20절)

빛의 자녀인 그리스도인은 지혜 없는 자처럼 행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처럼 행하여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15-16절).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여 행해야 합니다(17절). 바울은 악한 이 세대에 대해 분명하고 강력하게 경고하며 권면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18절). 성령 충만함을 통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러지는 거룩한 빛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 오늘 만난 하나님, 감사와 회개할 것, 오늘의 헌신(순종)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정리해 보세요 ✧

✧ 오늘의 기도 ✧

에베소서 6:1-18 그리스도인의 치열한 영적 전쟁의 삶

자녀의 순종과 부모의 역할

1 자녀들이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2**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3**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4** 또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과 주인의 관계

5 종들이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6**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7**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8**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 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앎이라 **9** 상전들이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앎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10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11**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12**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13**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14**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 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15**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16**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17**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18**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말씀으로 기도하기 빈칸에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해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열왕기상 9장

3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 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에스겔 39장

21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에 나타내어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시편 90편

10 우리의 연수가 칠십이요 강건하면 팔십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 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에베소서 6:1-18

그리스도인의 치열한 영적 전쟁의 삶

자녀의 순종과 부모의 역할(1-4절)

바울 사도는 가정에서의 올바른 관계와 더불어, 치열한 영적 전투와 같은 신앙생활에서 필수적인 영적 무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1절).”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할 것을 명령하며,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이라고 가르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으로, 이는 장수와 번영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2-3절). 뿐만 아니라 부모는 자녀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대하지 말고, 주님의 가르침 안에서 사랑으로 양육해야 합니다(4절). 이는 자녀들이 주 안에서 올바르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종과 주인의 관계(5-9절)

이어서 바울은 종들에게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할 것을 명하고, 상전들에게도 종들을 공정하게 대하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것을 명령합니다(9절). 이로써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종이라는 인식을 가지도록 합니다(10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10-18절)

바울은 영적 전쟁과도 같은 그리스도의 삶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전신갑주(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를 취하라고 강조합니다(13절). 또한 기도와 간구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18절).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늘 기도로 깨어 승리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긴급한 일입니다.

✠ 오늘 만난 하나님, 감사와 회개할 것, 오늘의 헌신(순종)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정리해 보세요 ✠

✠ 오늘의 기도 ✠

빌립보서 1:1-14 복음 전파로 인한 감사와 기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루실 복음 전파

1 그리스도 예수와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2**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3**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4**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5**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6**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7**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8**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9**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10**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11**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바울의 매임과 복음 전파

옥에 갇힌 중에도 전파되는 복음의 말씀

12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13**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14**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겹겹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말씀으로 기도하기 빈칸에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해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열왕기상 10장

8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라

에스겔 40장

4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네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네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네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시편 91편

11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빌립보서 1:1-14

복음 전파로 인한 감사와 기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루실 복음 전파(1-11절)

바울은 감사와 기도로 시작하여 복음에 대한 공동체의 동역을 강조하며, 비록 자신이 투옥 중이지만 복음은 더욱 힘있게 전파되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7절). 바울은 서신의 시작에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3절). 그는 그들의 믿음과 복음에 대한 동역에 대해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서 시작하신 선한 일을 끝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합니다(6절).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대한 사랑과 애정을 표현하며(8절), 그들이 지혜와 분별력을 가지고 사랑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9-10절). 복음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구원으로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루셔서 열방에 증거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음을 힘써 전하며 늘 감사해야 합니다.

옥에 갇힌 중에도 전파되는 복음의 말씀(12-14절)

바울은 자신의 투옥이 오히려 복음 전파의 기회가 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12절). 그의 결박이 많은 형제들에게 용기를 주어, 더욱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13-14절). 바울의 서신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일하시며,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파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지 배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삶 속에서 감사와 기도로 서로를 세워가며, 사랑으로 충만한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 오늘 만난 하나님, 감사와 회개할 것, 오늘의 헌신(순종)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정리해 보세요 ✠

✠ 오늘의 기도 ✠

빌립보서 2:1-18 그리스도의 겸손과 순종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1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2**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마음을 품어 **3**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4** 각각 자기 일을 돌볼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겸손과 순종을 본 받으라

5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6**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8**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9**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10**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11**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12**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13**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14**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15**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16** 생명의 말씀을 밝히 나의 달음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함으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사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17**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18**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말씀으로 기도하기 빈칸에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해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열왕기상 11장

9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를 떠나므로 야훼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야훼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에스겔 41장

1 우리가 사로잡힌 지 스물다섯째 해, 성이 함락된 후 열넷째 해 첫째 달 열째 날에 곧 그 날에 야훼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시편 92편

12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하리로다

읽기 가이드

빌립보서 2:1-18

그리스도의 겸손과 순종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1-4절)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로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겸손과 순종, 그리고 사랑을 강조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합니다(1-2절). 바울은 성도들에게 서로 격려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고, 각자의 일을 돌아볼 뿐 아니라 남의 일을 돌아보라고 말합니다(3-4절). 이것이 교회가 하나 됨을 이루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고 더욱 서로 종노릇하며 사랑함으로써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겸손과 순종을 본 받으라(5-16절)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완전한 순종을 본받으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이셨으나 스스로 낮아져 종의 형체를 취하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셨습니다(6-8절). 그 결과 하나님은 예수님을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앞에 꿇게 하셨습니다(9-11절).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가운데서 빛으로 나타나야 합니다(15절). 그리하여 생명의 말씀을 밝혀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게 해야 합니다(16절).

묵상 노트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한 묵상을 정리해 보세요

✠ 오늘 만난 하나님, 감사와 회개할 것, 오늘의 헌신(순종)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정리해 보세요 ✠

✠ 오늘의 기도 ✠

빌립보서 3:1-16 예수를 얻기 위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다

육체(할례)를 자랑하지 말라

1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2**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3**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사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4**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5** 나는 팔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6**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오직 믿음으로 얻는 의

7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8**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9**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10**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11**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12**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13**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14** 꾀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15**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16**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말씀으로 기도하기 빈칸에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해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열왕기상 12장

24 야훼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니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야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에스겔 42장

13 그가 내게 이르되 좌우 골방 뜰 앞 곧 북쪽과 남쪽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야훼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에서 먹을 것이며 지성물 곧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거기 둘 것이니 이는 거룩한 곳이라

시편 94편

9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빌립보서 3:1-16

예수를 얻기
위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다

육체(할례)를 자랑하지 말라(1-6절)

바울은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권면하며(1절), “개들을 삼가라,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라, 할례파를 삼가라”고 경고합니다(2절). 바울은 유대인 중의 유대인이요 바리새파로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한 자였습니다(4-6절). 그러나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그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배설물로 여기며 무가치해졌음을 고백합니다(7-8절). 그는 그리스도가 아닌 거짓 가르침에 주의할 것을 당부하며 육체적 자랑(할례)에 대한 무의미함을 강조합니다. 육체의 자랑은 ‘그리스도의 의’가 아닌 ‘자기 의’를 자랑하는, 복음에 가장 적대적인 율법주의(공로주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그 어떤 것도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얻는 의(7-16절)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여기며, 그분을 얻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8절). 그는 이제 자신의 의가 아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의’를 추구합니다(9절). 바울의 목표는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 받아 그의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10-11절). 이제 그는 과거를 잊고 앞에 있는 쫓대를 향하여 계속 달려갑니다(14절).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곧 예수 안에서의 온전한 구원을 쫓는 것입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 부활의 소망을 품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대를 향해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야 합니다.

✠ 오늘 만난 하나님, 감사와 회개할 것, 오늘의 헌신(순종)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정리해 보세요 ✠

✠ 오늘의 기도 ✠

빌립보서 4:1-14 주 안에서 하나 되어 기쁨과 평강을 누리라

권면과 격려

1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2**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게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3** 또 참으로 나와 명에를 같이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4**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5**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6**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7**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8**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 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 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9**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자족하는 마음을 품으라

10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11** 내가 궁핍하므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12**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13**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14**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 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말씀으로 기도하기 빈칸에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해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열왕기상 13장

6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네 하나님 야훼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야훼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에스겔 43장

4 야훼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5**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야훼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시편 95편

7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지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8** 너희는 므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맛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읽기 가이드

빌립보서 4:1-14

주 안에서 하나되어 기쁨과 평강을 누리라

권면과 격려(1-9절)

바울은 유오디아와 순두게에게 서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합니다(2절). 이는 교회 공동체 내에서의 화합과 일치를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교회 내에서 의견이 다를지라도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는 이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강조합니다(4절). 진정한 기쁨은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거해야 하며, 십자가의 은혜로 한 몸 된 형제 자매들(지체)과 하나 되어 서로 사랑하는데 힘써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입니다(7절). 그러므로 염려 대신 기도로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야 합니다(6절).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평강을 누리기를 바라며 무엇이든지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스럽고, 명예로운 것들을 생각하라고 권면합니다(8절).

자족하는 마음을 품으라(10-16절)

이어서 바울은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는 마음을 배우라고 권면합니다(11절).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할 줄 아는 법을 배웠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바울의 고백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해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자족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묵상 노트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한 묵상을 정리해 보세요

✠ 오늘 만난 하나님, 감사와 회개할 것, 오늘의 헌신(순종)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정리해 보세요 ✠

✠ 오늘의 기도 ✠

골로새서 1:1-20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위대함

골로새 교회의 믿음과 사랑에 대한 칭찬

1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2**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3**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4**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었요 **5**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 짓이라 **6**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도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7**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 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었요 **8**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교회의 머리시라

근본이시며 만물의 으뜸이신 그리스도

9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10**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11**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12**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13**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14**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15**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16**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17**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18** 그는 모든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19**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20**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말씀으로 기도하기 빈칸에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해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열왕기상 14장

16 야훼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에스겔 44장

4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복문을 통하여 성전 앞에 이르시기로 내가 보니 야훼의 영광이 야훼의 성전에 가득한지라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

시편 97편

10 야훼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에 영혼을 보전하시라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골로새서 1:1-20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위대함

골로새 교회의 믿음과 사랑에 대한 칭찬(1-8절)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그들의 믿음과 사랑에 대해 칭찬하며, 더 나아가 그들이 더욱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타내는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에 대해 칭찬합니다(4절). 우리의 믿음은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골로새 교회를 향한 바울의 칭찬은 우리에게 격려와 도전을 줄 수 있는 좋은 본보기가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믿음이 더욱 자라가며, 이웃사랑을 힘써 실천하는 성숙함을 나타내어야 합니다.

근본이시며 만물의 으뜸이신 그리스도(9-20절)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 모든 영적 지혜와 총명에 이르기를 기도합니다(9절). 또한 그들이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더욱 아는 것에 자라가도록 기도합니다(10절). 그리고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13절).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시자 교회의 머리이시고, 그가 근본이시며 만물의 으뜸이 되십니다(15-18절). 그러므로 교회는 우리 주 예수님의 위대함을 높이 찬송하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고 경배해야 합니다.

✠ 오늘 만난 하나님, 감사와 회개할 것, 오늘의 헌신(순종)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정리해 보세요 ✠

✠ 오늘의 기도 ✠

골로새서 2:1-15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

거짓 교사에게 속지 않는 성도

1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2** 이는 그들로 마음에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3**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4**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5**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십자가로 승리하심

6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7**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8**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9**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10**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11**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12**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13**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14**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15**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말씀으로 기도하기 빈칸에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해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열왕기상 15장

4 그의 하나님 야훼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5** 이는 다윗이 헛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야훼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에스겔 45장

1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에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야훼께 예물로 드릴지니 그 길이는 이만 오천 척이요 너비는 만 척이라 그 구역 안 전부가 거룩하리라

시편 101편

6 내 눈이 이 땅의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골로새서 2:1-15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

거짓 교사에게 속지 않는 성도(1-5절)

거짓 교훈은 마귀의 무기입니다. 골로새 교회 설립자가 아닌 바울은 그곳 성도들의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1절). 그럼에도 골로새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이유는 성도들이 위로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해 그리스도의 비밀을 온전히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2절).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교묘한 말로 속이는 거짓 교사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4절). 육신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바울은 성령 안에서 성도들과 함께 있습니다. 거짓 교사의 유혹에도 흐트러짐 없이 믿음을 굳게 지키는 성도들은 바울의 기쁨입니다(5절). 진리 앞에서 거짓 교훈은 힘을 잃습니다.

십자가로 승리하심(6-15절)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빠지지 않으려면 믿음에 굳게 서야 합니다. 거짓 교사 중에 그리스도를 천사보다 열등한 존재로 규정하면서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그리스도가 '신성의 모든 충만'을 지닌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고 선포합니다(9-10절). 또한 육체적 할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가르치는 율법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손으로 행하지 않은, 육신을 벗어 버리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고 증언합니다(13절). 성도는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완전한 죄 사함을 이루었고, 율법을 무효화시켰으며, 악한 영들을 제압한 승리의 사건입니다(13-15절).

✠ 오늘 만난 하나님, 감사와 회개할 것, 오늘의 헌신(순종)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정리해 보세요 ✠

✠ 오늘의 기도 ✠

골로새서 3:1-17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새 사람

구속받은 성도의 삶

1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2**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3**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4**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5**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6**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구속받은 성도의 생활

7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8**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 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의 부끄러운 말이라 **9**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 버리고 **10**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11**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냐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12**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 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13**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14**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15**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17**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말씀으로 기도하기 빈칸에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해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열왕기상 16장

19 이는 그가 야훼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에스겔 46장

13 아침마다 일년 되고 흠 없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번제를 갖추어 나 야훼께 드리고 **14** 또 아침마다 그것과 함께 드릴 소제를 갖추되 곧 밀가루 육분의 일 에바와 기름 삼분의 일 힌을 섞을 것이니 이는 영원한 규례로 삼아 항상 나 야훼께 드릴 소제라 **15** 이같이 아침마다 그 어린 양과 밀가루와 기름을 준비하여 항상 드리는 번제물로 삼을지니라

시편 59편

2 나의 피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골로새서 3:1-17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새 사람

구속받은 성도의 삶(1-6절)

교회와 교인은 모두 세상에 속해있습니다. 우리 삶의 자리는 세상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와 성도는 세상에 대해 책임을 다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세상에 대한 책임을 무시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5절과 8절 그리고 9절의 '악행을 삼가라'는 의미입니다. 본문은 먼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합니다. 즉 나를 지배하고 있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을 죽여야 합니다.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이 모든 것의 근원은 바로 탐심입니다. 십계명 중 10번째 계명인 남의 것을 탐하는 탐심은 나머지 9개 계명을 무너뜨리고, 결국 인간과의 관계는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탐심을 하나님께서 가장 금하시는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구속받은 성도의 생활(7-17절)

바울은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땅의 것'에 대해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의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거룩한 삶의 유일한 해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바로 옛 사람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하여 하나님의 능력에 잇댄 새 사람을 입은 그리스도인임을 믿어 의심치 말아야 합니다. 끊임없이 위의 것을 추구하고, 위의 것을 생각하면 땅의 것은 자연스럽게 소멸됩니다. 즉 참 지식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보고, 묵상하고, 주신 말씀을 실천할 때 매일 새롭게 됩니다. 또한 본문 12-17절 말씀은 골로새 성도들이 입어야 할 새 사람의 모습에 대해 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권면하는 새 사람의 모습은 공동체의 평화와 하나 됨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중요한 덕목들입니다.

✠ 오늘 만난 하나님, 감사와 회개할 것, 오늘의 헌신(순종)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정리해 보세요 ✠

✠ 오늘의 기도 ✠

골로새서 4:1-18 바울의 권면

바울의 기도 부탁

1 상전들이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2**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3**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은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 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4**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5**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6**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기도의 목적과 두 동역자를 파송하는 이유와 끝인사

7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 주리니 그는 사랑 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8**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9**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 주리라 **10**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으며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11**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12**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13**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14**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15**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눔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16**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17** 아킵보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18**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말씀으로 기도하기 빈칸에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해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열왕기상 17장

14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의 말씀이 나 야훼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에스겔 47장

8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 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9**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10**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 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시편 103편

17 야훼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18**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골로새서 4:1-18

바울의 권면

바울의 기도 부탁(1-6절)

바울은 기도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쓴 편지들은 그가 교회들을 위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기도의 사람이었기에 골로새서 말미에서도 기도에 대한 권면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고 깊어집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깊이 알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꼭 붙어 있을 때만 우리는 이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유혹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꼭 붙어있을 때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에 힘써야 하는 이유입니다.

기도에서 중요한 또 다른 요소는 ‘감사’입니다. 물론 우리는 늘 감사하지도 않고 또 감사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는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에서 비롯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품 안에서 우리는 이 세상이 결코 빼앗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이 평안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기도의 목적과 두 동역자를 파송하는 이유와 끝인사(7-18절)

기도의 목적은 12절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는 것”입니다. ‘완전하다’는 말은 ‘온전하게 성취하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확신 있게 선다’는 말은 ‘성숙한 지경에 이른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세운 동역자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성취하고 성숙한 신앙에 이르기를 위해 기도해 힘쓰고 있음을 증언합니다.

✠ 오늘 만난 하나님, 감사와 회개할 것, 오늘의 헌신(순종)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정리해 보세요 ✠

✠ 오늘의 기도 ✠

시편 104:24-35 창조주를 송축함

하나님의 창조 기사

24 야훼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25**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니이다 **26** 그 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워야단이 그 속에서 노니이다 **27**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28**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29** 주께서 낮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30**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의 다짐

31 야훼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야훼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32** 그가 땅을 보신즉 땅이 진동하며 산들을 만지신즉 연기가 나는도다 **33** 내가 평생토록 야훼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 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34**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35**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있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말씀으로 기도하기 빈칸에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해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열왕기상 18장

21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야훼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에스겔 48장

8 유다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너희가 예물로 드릴 땅이라 너희는 이만 오천 척이요 길이는 다른 몫의 동쪽에서 서쪽까지와 같고 성소는 그 중앙에 있을지니 **9** 곧 너희가 야훼께 드려 예물로 삼을 땅의 길이는 이만 오천 척이요 너희는 만 척이라

데살로니가전서 1장

5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시편 104:24-35

창조주를 송축함

하나님의 창조 기사(24-30절)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천지창조와 섭리에 대해서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104편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표현하고 있고, 5절부터 30절까지는 자연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그들을 통치하심을 잘 설명해줍니다. 마지막으로 31절부터 35절까지는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시는 그분께 평생 찬양하며 살겠다는 시인의 굳은 의지가 나타납니다. 두 번째 단락은 5절부터 30절까지의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있음을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생물이나 생물이나 온순한 것이나 사나운 것의 구별 없이 창제한 모든 것을 돌보시고 주관하시며 다스리십니다. 이처럼 우리를 만드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분이 또한 우리의 모든 문제 또한 해결해주실 것을 믿고 그분의 돌보심을 확신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의 다짐(31-35절)

마지막으로 31절부터 35절은 시인이 자신이 평생 어떻게 살 것인지를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시인은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을 때, 그 지음 받은 목적이 있음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시인은 자신이 어떤 목적으로 지음을 받았는지 바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창조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에 맞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하실 것입니다.

✠ 오늘 만난 하나님, 감사와 회개할 것, 오늘의 헌신(순종)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정리해 보세요 ✠

✠ 오늘의 기도 ✠

다니엘 1:8-21 느부갓네살 왕궁의 소년들

다니엘과 세 친구의 신앙의 지조

8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9** 하나님은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10**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 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나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11**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12**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13**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14**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15**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16**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얻음

17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18**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왔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19**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20**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십 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21**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니라

말씀으로 기도하기 빈칸에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해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열왕기상 19장

18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칠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나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시편 105편

3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야훼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라도

다니엘 1:8-21

느부갓네살 왕궁의 소년들

다니엘과 세 친구의 신앙의 지조 (8-16절)

다니엘은 하나님이 심판자라는 사실을 평생 잊지 않았기 때문에 적 진영 한복판인 바벨론 수도, 그것도 느부갓네살 왕의 궁전에서 배교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인으로 살았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 왕궁에서 먹는 산해진미를 먹지 않기로 결단했습니다. 다니엘은 우상에 게 바친 음식을 먹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신을 더럽히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왕이 제공하는 음식을 먹지 않기로 했습니다. 왕이 제공하는 음식을 거부하는 것은 바벨론 왕의 명령을 어긴 것이고, 이는 곧 목숨이 위협해질 것은 당연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자신을 성결하게 구별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은혜와 긍휼로 다니엘을 보살펴주게 하셨습니다. 또한 그들은 채소와 물만 먹었음에도 산해진미를 먹은 다른 소년들보다 더 훌륭하게 성장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음(17-21절)

17절에서 21절은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 뛰어난 지혜를 주셔서, 느부갓네살 왕을 모시는 자로 삼게 하셨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모시기 시작해서 벨사살 왕, 그리고 다니엘을 사자 굴에 던진 다리오 왕을 거쳐 바사의 고레스 왕까지, 나라가 바뀌었음에도 4명의 왕을 70년간 섬겼습니다. 고레스 왕 원년에 고레스 왕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를 찬양하며, 포로인 유대인들을 고향 예루살렘으로 귀환시켰습니다. 고레스 왕이 이처럼 유대인의 포로귀환 칙령을 내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 포로들을 해방시키기 위한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두신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섬하시는 분임을 인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어떠한 상황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 오늘 만난 하나님, 감사와 회개할 것, 오늘의 헌신(순종)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정리해 보세요 ✠

✠ 오늘의 기도 ✠

다니엘 2:14-23 다니엘에게 은밀한 것을 보이시다

다니엘의 기도와 하나님의 계시

14 그 때에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15**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나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리매 **16**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 드리리이다 하니라 **17**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18**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19**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20**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21**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데도다 **22**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23**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며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말씀으로 기도하기 빈칸에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해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열왕기상 20장

42 그가 왕께 아뢰되 야훼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네 손으로 놓았은즉 네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네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느니라

데살로니가전서 3장

6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7**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8**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시편 106편

4 야훼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5**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다니엘 2:14-23

다니엘에게 은밀한 것을 보이시다

다니엘의 기도와 하나님의 계시(14-23절)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왕궁에서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갈 때에 다니엘이 그에게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그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찾아가서 생각할 시간을 주시면 꿈의 해석을 알려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니엘이 세 친구들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요청하며 다니엘도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이 왕을 찾아가서 꿈해몽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여쭙기 위함이었습니다. 다니엘의 이러한 행동은 그가 평소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통하는 은혜의 시간을 가졌기에 이번 일도 하나님께 간구하여 그 답을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을 한 것입니다. 19절을 보면 다니엘은 기도 중 환상으로 은밀한 것을 보았습니다. 다니엘이 은밀한 것을 보았다는 것은 기도의 응답받았음을 의미합니다. 본문 21절의 '때와 계절'은 사시사철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때와 절기'의 원문을 직역하면 '때와 정해진 기간'입니다.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가 의미하는 바는 바벨론의 왕을 비롯한 세상 나라의 왕들의 때와 정해진 기간이 하나님의 절대주권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왕들을 폐하고 왕들을 세우시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 오늘 만난 하나님, 감사와 회개할 것, 오늘의 헌신(순종)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정리해 보세요 ✠

✠ 오늘의 기도 ✠

다니엘 3:13-23 다니엘의 세 친구

세 친구의 신앙의 지조

13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14**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15**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 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 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16**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17**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18**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 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세 친구를 풀무불에 던지다

19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칠 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20**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지라 하니라 **21**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겹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졌더라 **22**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23**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말씀으로 기도하기 빈칸에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해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열왕기상 21장

27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베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베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28** 야훼의 말씀이 디셋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29**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하므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3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시편 107편

16 그가 늦문을 깨뜨리시며 쇠빋장을 꺾으셨음이라 **17**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18** 그들은 그들의 고통 때문에 야훼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다니엘 3:13-23

다니엘의 세 친구

세 친구의 신앙의 지조(13-18절)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는 왕의 제안을 일언지하에 거절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바로 신앙적인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바른 선택’과 ‘바른 결단’입니다. 요즘은 거의 좋은 것이 좋고, 다수가 하면 그것이 진리인 것으로 여겨지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무엇이 바른 것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보다 무엇이 나에게 이익을 주는 지, 무엇이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지가 중요한 선택의 원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말씀대로 선택하지 않은 것의 결과가 언제나 사상누각과 같다는 것을 잊지 않는 사람입니다.

세 친구를 풀무불에 던지다(19-23절)

느부갓네살은 그들을 향해 정색을 하고 풀무불의 온도를 7배를 올리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그 풀무가 만들 수 있는 최고의 온도를 의미이기도 하고, 그 풀무 속에서는 그 누구도 살 수가 없다는 의미였습니다.

✠ 오늘 만난 하나님, 감사와 회개할 것, 오늘의 헌신(순종)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정리해 보세요 ✠

✠ 오늘의 기도 ✠

다니엘 4:1-18 느부갓네살 왕의 두 번째 꿈

왕이 다니엘에게 꿈을 말함

1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이다 **2**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 하노라 **3**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며,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며,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4**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5**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리 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변민하였노라 **6**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7** 그 때에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 주지 못하였느니라 **8**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9** 박수장 벨드사살아 네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네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10**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리 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11**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12**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13** 내가 침상에서 머리 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에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14** 그가 소리 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헤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15**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 두고 쇠와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 풀 가운데에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에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16**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일곱 때를 지내리라 **17**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18**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살아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네 안에 있음이라

말씀으로 기도하기 빈칸에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해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열왕기상 22장

43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야훼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항상 기뻐하라 **17** 쉬지 말고 기도하라 **18**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시편 108편

3 야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뭇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4**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5** 하나님이며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다니엘 4:1-18

느부갓네살 왕의 두 번째 꿈

왕이 다니엘에게 꿈을 말함(1-18절)

본문의 첫 부분은 느부갓네살 왕이 백성들에게 조서를 내리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두 번째 꿈을 꾸고 다니엘을 통해 해석을 받았지만, 1년이라는 시간 동안 깨닫지 못하다가 이후 고통스러운 긴 시간을 겪고 난 이후에 그는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과거에 있었던 그 일들을 회고하면서 조서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집과 궁에서 편히 있을 때 한 꿈을 꾸었다고 말합니다. 평안하고 모든 것이 잘 되고 있을 때 오히려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신앙의 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내 삶이 편안하고 안정적이고 일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다면, 그럴 때 더 주의하고 겸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그의 꿈을 다니엘에게 전했고 그 꿈을 해석해 줄 것을 청합니다.

묵상 노트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한 묵상을 정리해 보세요

✠ 오늘 만난 하나님, 감사와 회개할 것, 오늘의 헌신(순종)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정리해 보세요 ✠

✠ 오늘의 기도 ✠

다니엘 5:1-12 벨사살 왕의 잔치와 다니엘의 해석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베풀다

1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천 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천 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2**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3**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 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4**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5** 그 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6**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 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친지라 **7** 왕이 크게 소리 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 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8** 그 때에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 주지 못하는지라 **9**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왕비에게 기억되는 다니엘

10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 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11**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12**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 드리리이다 하니

말씀으로 기도하기 빈칸에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해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열왕기하 1장

15 야훼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데살로니가후서 1장

3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4**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시편 110편

3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다니엘 5:1-12

벨사살 왕의 잔치와 다니엘의 해석

벨사살 왕의 잔치(1-9절)

당시 도성은 포위 되었고 그의 생명과 나라는 위태로웠기에, 다니엘은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벨사살 왕은 하나님의 심판을 무시하고 귀인 일천 명을 초대해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에 술을 따라 마시게 합니다. 또한 그는 금, 은, 동, 철, 목, 석으로 만든 신들을 찬양합니다. 벨사살 왕은 하나님의 신성을 모욕하는 큰 죄를 범하고 맙니다. 그 때에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축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사람은 보지 못하고 손가락만 보게 될 때에,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무릎이 서로 부딪칠 만큼의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전능하신 만왕의 왕 하나님 앞에 우상을 숭배하는 자는 이처럼 그 두려운 심판 앞에 공포에 휩싸여 결국 망하게 됩니다.

왕비에게 기억되는 다니엘(10-12절)

왕비는 왕의 변민을 해결할 사람으로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으며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다고 극찬을 한 다니엘을 추천합니다.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하고 경탄할 만큼 선행기에 왕의 부친 느브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자기의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고 이름 지었다는 사실 또한 알려줍니다. 왕비는 “다니엘이라면 그 글의 해석을 알려드리이다”라고 왕 앞에서 분명하고 확신 있게 말합니다. 다니엘은 벨사살 왕의 꿈을 해석함으로써 세상에 드러나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게 된 것입니다.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다니엘처럼 숨어있어도 누군가에게 선택된 도구로 기억되어 하나님의 때에 선택된 도구로 쓰임 받습니다.

✠ 오늘 만난 하나님, 감사와 회개할 것, 오늘의 헌신(순종)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정리해 보세요 ✠

✠ 오늘의 기도 ✠

다니엘 6:1-14 다니엘의 등단

새로운 정부에 다니엘이 세워지다

1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백이십 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2**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의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 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3**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4**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더라 **5**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기도를 금하는 조서를 알고도 기도하는 다니엘

6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 하옵소서 **7**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삼십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 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8**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의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9**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10**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11**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12**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삼십 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 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의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13**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세 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14**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말씀으로 기도하기 빈칸에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해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열왕기하 2장

9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14**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시편 112편

1 할렐루야, 야훼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2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함이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다니엘 6:1-14

다니엘의 등단

새로운 정부에 다니엘이 세워지다(1-5절)

다리오가 바벨론을 정복하여 왕위에 오르게 되자 그는 새로운 정부를 만들어 방백 일백 이십 명을 세워 각 지방을 다스리게 합니다.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이들의 임무는 왕에게 손해가 없었고, 그들의 직무는 국가 수익을 관리하는 직무였습니다. 다니엘은 세워진 모든 이들보다 민첩하고 뛰어나서 왕은 다니엘로 전국을 다스리게 하였습니다. 함께 세워진 총리와 방백들은 다니엘을 시기하여 국사에 대하여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허물도 찾지 못했습니다. 이는 그가 충성되어 그릇됨도 없고 허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그들은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의 율법에서 그를 고발할 근거를 찾게 되는데,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무엇을 구하면 사자 굴에 던져지는 조서를 내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 즉 기도하는 사람은 다니엘처럼 언제나 대적자들이 있음을 분명히 알고 더욱 믿음으로 깨어 세상을 분별한 지혜와 능력을 갖추야 할 것입니다.

기도를 금하는 조서를 알고도 기도하는 다니엘(6-14절)

다니엘은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집 뒷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그의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했습니다. 성도는 세상의 어떠한 박해와 유혹 속에서도 다니엘처럼 자신의 믿음을 굳게 지키며 거룩한 기도의 삶에 늘 힘써야 합니다. 성도는 거룩한 삶으로 인해 고난이 오더라도 믿음으로 나아갈 때, 모든 환경을 뛰어넘는 초월의 능력을 주심을 믿어야 합니다. 복음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악한 세상을 이길 힘은 오직 믿음뿐이기 때문입니다.

묵상 노트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한 묵상을 정리해 보세요

✠ 오늘 만난 하나님, 감사와 회개할 것, 오늘의 헌신(순종)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정리해 보세요 ✠

✠ 오늘의 기도 ✠

다니엘 7:1-14 다니엘의 네 짐승 환상

다니엘이 환상 중에 네 짐승을 보

1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리 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2**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의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3**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4**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5**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잇사이에는 세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6**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7** 내가 밤 환상 가운데에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열 뿔이 있더라 **8**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의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하나님의 정사와 심판 보좌에 대한 환상

9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10**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이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11** 그 때에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12**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13**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14**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말씀으로 기도하기 빈칸에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해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열왕기하 3장

1 유다의 여호사밧 왕 열여덟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열두 해 동안 다스리니라 **2** 그가 야훼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하였음이라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시편 115편

12 야훼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13**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야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다니엘 7:1-14

다니엘의 네 짐승 환상

다니엘이 환상 중에 네 짐승을 봄(1-8절)

다니엘이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리 속으로 환상을 받아 생생하게 기록합니다(1절). 하늘의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부는 것인데 그 바람은 제국들 사이에 패권을 잡고자 서로 다투고 있는 것입니다(2절). 네 짐승 중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습니다(4절). 둘째는 곰과 같고 셋째는 표범과 같습니다(5-6절). 넷째는 열 개의 뿔이 있고 모든 짐승 중에 가장 강합니다(7절). 네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들을 의미합니다(17절).

하나님의 정사와 심판 보좌에 대한 환상(9-14절)

다니엘이 또 다른 환상을 보게 되는데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와 인자 같은 이입니다(9, 13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인자 같은 이에게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줍니다(13-14절). 이 신비한 환상을 천사 중 하나가 해석해줍니다(16절). 이 환상의 해석(의미)은 바로 이 땅의 나라들은 결국 모두 망하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다스리는 영원한 나라가 임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26-27절). 그러므로 성도는 눈 앞에 보이는 세상 나라와 세속적인 권력이 아니라 말씀 속에 거하는 그리스도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해야 합니다. 만유의 주되신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그 나라만이 이 땅 위에 영원히 설 것입니다.

✠ 오늘 만난 하나님, 감사와 회개할 것, 오늘의 헌신(순종)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정리해 보세요 ✠

✠ 오늘의 기도 ✠

다니엘 8:1-14 솟양과 숫 염소의 환상

환상을 보는 다니엘

1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삼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2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 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올래 강변에서이니라 3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솟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 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4 내가 본즉 그 솟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숫염소 환상

5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숫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6 그것이 두 뿔 가진 솟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7 내가 본즉 그것이 솟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솟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솟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솟양을 땅에 엎드리뜨리고 짓밟았으나 솟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8 숫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9 그 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10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의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11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재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 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12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13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14 그가 내게 이르되 이천삼백 주야까지니 그 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말씀으로 기도하기 빈칸에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해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열왕기하 4장

32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33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 뿐이라 엘리사가 야훼께 기도하고 34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디모데전서 1장

17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시편 116편

8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대 9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야훼 앞에 행하리로다

다니엘 8:1-14

숫양과 숫 염소의 환상

환상을 보는 다니엘(1-4절)

두 뿔 가진 한 마리의 숫양은 ‘메대, 바사’를 가리킵니다(20절). 두 긴 뿔 가운데 나중에 난 뿔이 더 길다는 것은 메대, 바사가 연합국이지만 고레스가 통치하던 바사가 더욱 강성하여 바벨론을 정복하고 메대, 바사를 주도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숫양이 서, 북, 남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바사의 세력 확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는 바사가 서쪽의 바벨론, 수리아, 소아시아, 북쪽의 아르메니아, 카스피 해안, 남쪽의 애굽, 에디오피아 등을 쳐서 정복할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숫염소 환상(5-14절)

다니엘은 두 눈 사이에 큰 뿔을 가진 숫염소가 온 지면을 두루 다니는 환상을 보았는데, 여기서 숫염소는 헬라 제국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숫염소의 발이 땅에 닿지 않을 정도로 다닌다는 것은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의 정복이 대단히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숫염소가 숫양을 죽이는 것은 헬라가 바사를 정복함을 의미합니다. 현저한 뿔 넷은 알렉산더 사후의 헬라 제국이 차지한 애굽, 카산더가 차지한 마케도냐, 리시마쿠스가 차지한 트레이스와 소아시아, 셀류쿠스가 차지한 시리아의 네 나라로 분할 통치됨을 의미합니다.

✠ 오늘 만난 하나님, 감사와 회개할 것, 오늘의 헌신(순종)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정리해 보세요 ✠

✠ 오늘의 기도 ✠

다니엘 9:1-14 다니엘의 기도

다니엘의 깨달음과 결심

1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2**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야훼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 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칠십 년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3**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다니엘의 회개 기도

4 내 하나님 야훼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5**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6**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7**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오미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8**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마는 **9**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며 **10** 우리 하나님 야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야훼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11**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12**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13**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니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야훼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14** 그러므로 야훼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야훼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말씀으로 기도하기 빈칸에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해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열왕기하 5장

14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 강에 일곱 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 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디모데전서 2장

4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시편 117편

1 너희 모든 나라들아 야훼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2** 우리에게 향하신 야훼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야훼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라다 할렐루야

다니엘 9:1-14

다니엘의 기도

다니엘의 깨달음과 결심(1-3절)

다니엘은 나라와 교회를 위해 자신의 사명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한 때는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 때였는데, 다리오의 고레스와 함께 바벨론을 정복하고 왕이 된 사람입니다. 유대인의 포로 기간이 끝나는 칠십 년이 되는 해에 다니엘은 서책을 읽으며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칠십 년 만에 마치고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는 하나님의 구원계획 즉 바벨론 포로귀환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2절). 다니엘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그들을 위해 성취하시고자 하셨던 구원을 준비하도록,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기도로 간구합니다(3절).

다니엘의 회개 기도(4-14절)

다니엘은 민족의 죄를 통곡하며 회개합니다. 그는 자신의 민족이 범죄하여 패역하고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난 것을 회개합니다. 또한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그들의 왕들과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한 죄와, 민족의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며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과 용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은 불순종으로 인해 각국으로 흩어졌고, 미약해졌으며 궁핍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기에 겪게 되는 아픔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민족의 아픔과 죄를 자신의 것으로 여기며 기도한 것입니다. 성도는 다니엘처럼 늘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민족과 사회 모든 각 분야에서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지지 않은 모든 죄를 끌어안고 함께 슬퍼하며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를 들으시고 개인과 가정과 나라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 오늘 만난 하나님, 감사와 회개할 것, 오늘의 헌신(순종)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정리해 보세요 ✧

✧ 오늘의 기도 ✧

다니엘 10:1-14 다니엘에게 임한 환상

다니엘의 음식과 히데겔 강가에서의 환상

1 바사 왕 고레스 제삼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2** 그때에 나 다니엘이 세 이레 동안을 슬퍼하며 **3** 세 이레가 차기까지 좋은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4** 첫째 달 이십사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5** 그 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 는 우바스 순금 띠를 띠었더라 **6**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햇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7**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 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8**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9**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환상 중에 보여주신 영광

10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11**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네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12**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 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13**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이십일 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 주므로 **14**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네 백성이 당할 일을 네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말씀으로 기도하기 빈칸에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해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열왕기하 6장

17 기도하여 이르되 야훼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야훼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쌌더라

디모데전서 3장

8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를 탐하지 아니하고 **9**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시편 119편

9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10**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다니엘 10:1-14

다니엘에게 임한 환상

다니엘의 금식과 히데겔 강가에서의 환상(1-9절)

다니엘은 자신과 이스라엘의 죄로 인하여 앞으로 그들이 당할 민족적 환난과 고통 때문에 세 이레 동안 슬퍼하며 금식했습니다. 이제 곧 큰 전쟁이 일어나 온 세상이 피바다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살육 당할 끔찍한 일을 생각하니, 다니엘은 이 일로 인하여 슬퍼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에 세 이레 동안 다니엘은 그의 극한 슬픔 때문에 육신의 모든 음식을 거절하였고 좋은 떡과 포도주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니엘의 뜨거운 민족애와 하나님을 사모하는 열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도 금식기도를 통해 진실된 회개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환상 중에 보여주신 영광(10-14절)

다니엘은 이상 중에 사람 모습을 한 광채 나는 영상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주님이신데 제사장의 성의인 세마포 옷을 입고 왕의 상징인 우바스 정금띠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몸은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황옥 같았고, 얼굴은 광채와 위엄을 갖춘 번개빛 같았습니다. 또한 눈은 심령을 통찰하시는 햇불 같았고 팔과 발은 공의의 심판을 뜻하는 빛난 늦 같았으며, 말소리는 호령과 권세를 뜻하는 무리의 소리와 같았습니다. 다니엘이 체험한 환상은 홀로 본 것입니다. 이처럼 영광스러운 환상은 아무 사람이나 다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요, 심령이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는 사람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환상을 체험한 다니엘은 몸에 힘이 빠지고 떨리며 호흡이 중단되었고,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으며 자신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했습니다.

✠ 오늘 만난 하나님, 감사와 회개할 것, 오늘의 헌신(순종)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정리해 보세요 ✠

✠ 오늘의 기도 ✠

다니엘 11:1-19 남방 왕과 북방 왕이 싸우리라

헬라 제국과 네 왕조

1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2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네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세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의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3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4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뿔혀서 그 외의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5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6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 왕의 딸이 북방 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 때에 도와 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7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게서 난 자 중의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 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8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은 다 노략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 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9 북방 왕이 남방 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왕조들의 전쟁의 역사

10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이 넘침 같이 나아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 왕의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요 11 남방 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 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 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 준 바 되리라 12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려뜨릴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13 북방 왕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때 곧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14 그 때에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 왕을 칠 것이요 네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15 이에 북방 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16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17 그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18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로 돌릴 것이므로 19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말씀으로 기도하기 빈칸에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해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열왕기하 7장

9 나병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디모데전서 4장

12 누구든지 네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13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시편 119편

25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다니엘 11:1-19

남방 왕과
북방 왕이 싸우리라

헬라 제국과 네 왕조(1-9절)

본문은 이스라엘을 둘러 싸고 있는 강대국들의 예언인데 바사에서 일어날 네 왕과 헬라의 능력 있는 왕을 언급하며, 그 후에 갈라질 네 나라에 관한 말씀입니다. 북방 왕은 헬라의 알렉산더 사후 셀류쿠스, 리시마쿠스, 톨레미, 카산더에 의해 넷으로 분할된 나라 중 셀류쿠스 왕조를 말합니다. 또한 다니엘은 갈라진 네 나라 중 남방의 왕과 북방의 왕 사이에 벌어질 전쟁을 언급합니다.

왕조들의 전쟁의 역사(10-19절)

팔레스타인을 정복한 안티오쿠스 3세가 애굽 침략 정책을 변경하는데, 애굽과 평화 조약을 맺을 여자의 딸은 클레오 파트라를 가리킵니다. 클레오 파트라는 프톨레미 왕조 최후의 여왕입니다, 그녀는 프톨레미 12세의 차녀로서 한때 남동생 프톨레미 13세와 결혼하여 애굽을 통치했으나 후에 쫓겨나고 로마의 시저와 인연을 맺게 됩니다. 그 후 그녀는 시저와 함께 남동생을 죽이고 애굽을 통치 하다가, 시저의 암살 후 안토니우스와 결혼하여 애굽과 로마의 화친을 계속 꾀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안토니우스는 옥타비아누스와 대립했는데 안토니우스가 패하고 결국 그녀는 옥타비아누스의 공격 때 독사의 자살로 끝을 맺고 맙니다. 역사에 이름을 남길 정도로 강력한 권세를 떨친 왕들은 사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도구일 뿐입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이시며 모든 역사와 만물을 통치하는 위대하신 전능자이십니다.

✠ 오늘 만난 하나님, 감사와 회개할 것, 오늘의 헌신(순종)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정리해 보세요 ✠

✠ 오늘의 기도 ✠

다니엘 12:1-13 마지막 때까지 인봉하라

종말의 징조

1 그 때에 네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 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 때에 네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2**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3**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4**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5**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6**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7**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 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 때 두 때 반 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말씀을 봉함하게 하신 하나님

8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9**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같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10**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회개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1290일과 1335일의 의미

11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천이백구십일을 지낼 것이요 **12** 기다려서 천삼백삼십오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13**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네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네 몫을 누릴 것임이라

말씀으로 기도하기 빈칸에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해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열왕기하 8장

19 야훼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디모데전서 5장

17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시편 119편

71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72**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다니엘 12:1-13

마지막 때까지 인봉하라

마지막 때의 징조(1-7절)

본 장에는 마지막 예언과 환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유사 이래 없던 큰 대환란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두 종류의 사람으로 구분되는데, 자는 자 중에 깨어나 영생을 얻을 자와,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입니다. 전자는 믿는 성도들이요, 후자는 불신자를 뜻합니다. 그리고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며,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같이 영원히 비추이게 됩니다. 예언 후 두 사람은 마지막 때가 언제 인지는 모르지만, 이 일이 한 때 두 때 반 때를 지나서 마지막 때는 반드시 온다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봉함하게 하신 하나님(8-10절)

다니엘이 깨닫지 못하자 하나님은 깨닫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비밀들을 봉함하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비밀은 영원히 간직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 다시 개봉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1290일과 1335일의 의미(11-13절)

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주장이 있으나 장차 적그리스도에 의하여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가증한 물건을 세울 때를 기점으로 하여 천년 왕국에 이르는 기간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마지막(종말)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자는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며 평안히 쉬고 끝날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 오늘 만난 하나님, 감사와 회개할 것, 오늘의 헌신(순종)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정리해 보세요 ✠

✠ 오늘의 기도 ✠

호세아 1:1-11 호세아 가정을 통한 하나님 말씀

호세아의 결혼과 자녀들

1 웃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브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야훼의 말씀이라 **2** 야훼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야훼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야훼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3**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4** 야훼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르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갇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5** 그 날에 내가 이스르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6**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으매 야훼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7**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야훼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8**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뎀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9** 야훼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이스라엘의 회복 약속

10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 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 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11**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 오리니 이스르엘의 날이 클 것임이로다

말씀으로 기도하기 빈칸에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해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열왕기하 9장

1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2** 거기에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3**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야훼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디모데전서 6장

11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12**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시편 119편

73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74**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호세아 1:1-11

호세아 가정을 통한 하나님 말씀

호세아의 결혼과 자녀들(1-9절)

이스라엘 역사상 유례없이 부강했지만, 동시에 유례없이 악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부르십니다. 호세아는 풍요와 번영을 축복으로 착각하고 부정과 불의를 일삼는 배역한 이스라엘을 향해 심판을 선언합니다. 진실과 인애가 없는 부국강병이나 경건과 윤리를 외면한 경제 성장은 또 다른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여 음란한 자녀를 낳으라고 명하십니다. 이것은 선지자에게 윤리적으로나 제의적으로, 신학적 전통과 사회적 관습으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명령을 통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일그러진 관계에 있음을 보여주려 하십니다. 음란한 여인이 낳은 세 자녀의 이름을 통해 이스라엘이 범한 “죄의 결과”와 하나님의 “심판 의지”를 보여 주십니다.

이스라엘의 회복 약속(10-11절)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회복의 미래를 약속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칼과 병거보다 하나님을 의뢰할 때, 하나님은 전쟁의 위험에서 유다를 건져내시고 남과 북이 하나 되어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하는 회복의 그날을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음란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 있고서야 영광스러운 회복과 구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정결하도록 힘써 순종하며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합니다.

✠ 오늘 만난 하나님, 감사와 회개할 것, 오늘의 헌신(순종)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정리해 보세요 ✠

✠ 오늘의 기도 ✠

호세아 2:1-13 이스라엘을 향한 야훼의 경고**음란을 제거할지라**

1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2**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3**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뉜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 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 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4**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이니라 **5**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삼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6**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7**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 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음란한 이스라엘을 향한 경고

8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9**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 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삼을 빼앗으리라 **10**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 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11**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12**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13** 그가 귀고리와 패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말씀으로 기도하기 빈칸에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해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열왕기하 10장

30 야훼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네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사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디모데후서 1장

1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은 **2**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시편 119편

101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102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호세아 2:1-13

이스라엘을 향한 야훼의 경고

음란을 제거할지라(1-7절)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음란한 길에서 돌아오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이혼을 통보하지 않고 “세 번”에 걸쳐 이스라엘의 배반을 고발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 음란하고 음행을 범했지만, 음녀의 삶을 버리고 돌아오면 받아주겠다 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남편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우리의 변절을 참지 못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이 시대의 교회를 보시고 혹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지 않다고 하실까 두렵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들의 음란을 차단하고 결혼 관계가 파국으로 치닫는 것을 막기 위해, 하나님은 친히 가시와 담으로 그 길을 막으십니다. 그들이 열심히 쫓아가지만 미치지 못하고 애써 찾아보지만 만나지 못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본 남편’인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음란한 이스라엘을 향한 경고(8-13절)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배은망덕을 책망하십니다. 그들은 땅의 결실을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바알이 준 ‘제와의 대가’로 여깁니다. 이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주신 것을 도로 찾겠다고 하십니다. 결국 그들의 일상과 제의는 무너지고 즐거움도 사라지며 삶의 터전마저 황폐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그들의 우매함과 바알의 무능함이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는 구하기만 하면 주시는 하나님만이 아니라 말씀에 청종하지 않으면 주신 것을 빼앗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 오늘 만난 하나님, 감사와 회개할 것, 오늘의 헌신(순종)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정리해 보세요 ✠

✠ 오늘의 기도 ✠

호세아 3-4장 이스라엘의 죄악과 하나님의 사랑**고멜을 용서하는 호세아**

1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야훼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2** 내가 은 열다섯 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3**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네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4**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5**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야훼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야훼를 경외하므로 야훼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1 이스라엘 자손들아 야훼의 말씀을 들으라 야훼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2**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3**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4**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네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5**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네 어머니를 멸하리라 **6**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7** 그들은 변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8**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9**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10**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효가 늘지 못하니 이는 야훼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말씀으로 기도하기 빈칸에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해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열왕기하 12장

2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야훼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3**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디모데후서 2장

15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시편 119편

137 야훼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138**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니이다 **139**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140**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하므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이스라엘의 죄악과 하나님의 사랑

고멜을 용서하는 호세아(3:1-5)

본 장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집을 나간 고멜을 다시 데려와 사랑과 은혜를 베푸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서 잘 나타납니다. 집을 나간 고멜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이스라엘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고멜을 다시 값 주고 데려온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다시 신부로 삼아주시고 용납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죄인 된 우리도 지금 그분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값 주고 산바 되어 주님의 신부로 인정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서를 힘입어 거룩한 신부로서 주님만 사랑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4:1-10)

지금까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호세아와 고멜 간의 부부관계를 통해 말해 왔으나, 본 장부터는 고멜로 비유된 이스라엘의 죄악상을 호세아가 하나하나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중 본 단락은 그러한 죄악상을 고발하는 서론으로, 하나님을 떠난 삶의 결과는 타락과 사망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상 고발의 첫 번째 대상은 예언자들을 포함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결여, 교만, 물질에 대한 욕심을 고발하고 결국 그들에게 임할 심판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종교 지도자의 죄악이 가장 먼저 고발되었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곧 나라의 흥망성쇠는 분명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에 달려 있으며, 따라서 그 중간 역할을 감당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이야말로 멸망의 첫 번째 원인인 것을 나타냅니다.

✠ 오늘 만난 하나님, 감사와 회개할 것, 오늘의 헌신(순종)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정리해 보세요 ✠

✠ 오늘의 기도 ✠

호세아 5:1-15 이스라엘의 심판과 회복 예언

이스라엘의 전체의 죄악상 고발

1 제사장들이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깨달으라 왕족들이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불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2** 패역자가 살육죄에 깊이 빠졌으며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3**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네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4**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야훼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5**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6** 그들이 양 떼와 소 떼를 끌고 야훼를 찾으려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음이라 **7** 그들이 야훼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새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다

하나님의 심판과 이스라엘의 회복

8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나팔을 불며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벳아웬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네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9**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10**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 같이 부으리라 **11**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12**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13**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앗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14**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잡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15**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말씀으로 기도하기 빈칸에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해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열왕기하 13장

25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벤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여호아하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벤하닷을 세 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디모데후서 3장

16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시편 119편

169 야훼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170**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171**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시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호세아 5:1-15

이스라엘의 심판과 회복 예언

이스라엘의 전체의 죄악상 고발(1-7절)

4장에서 종교 지도자와 백성들의 죄악상을 고발한 호세아는, 본 장에 이르러 이스라엘 전 계층의 죄악상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하나님만을 섬겨야 함에도 오히려 이방신, 특히 바알을 섬기는 간음죄를 범하였고 이로써 타락이라는 심각한 사생자를 낳은 것입니다. 우상 숭배가 만연한 어두운 시대에, 성도는 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로 깨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섬기는 순수한 신앙을 지켜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 거룩한 믿음임을 분명히 깨닫고, 타락한 시대에 구별된 자로 쓰임 받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이스라엘의 회복(8-15절)

지금까지 북이스라엘의 죄악상과 심판을 말한 호세아는, 이제 그 대상을 확대하여 남유다도 전쟁에 의한 심판을 면치 못 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 대한 심판이 그들의 영원한 멸망을 목적으로 함이 아님을 본 단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는 그들로 하여금 자기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여 구원을 이루고자 함입니다. 우리도 죄가 있다면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 오늘 만난 하나님, 감사와 회개할 것, 오늘의 헌신(순종)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정리해 보세요 ✠

✠ 오늘의 기도 ✠

호세아 7:1-16 계속되는 이스라엘의 범죄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의 죄악

1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 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 지어 노략질하며 **2**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에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3**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4**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궜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5**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6**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7** 그들이 다 화덕 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리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

8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에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9** 이 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10**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야훼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11**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 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앓수르로 가는도다 **12**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 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13**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값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 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14**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15**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 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16**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려지리니 이것 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말씀으로 기도하기 빈칸에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해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열왕기하 14장

3 아마샤가 야훼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4**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디모데후서 4장

17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18**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시편 120편

1 내가 환난 중에 야훼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호세아 7:1-16

계속되는 이스라엘의 범죄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의 죄악(1-7절)

하나님의 심판 대상을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까지 확대한 호세아는 계속해서 그들 언약 백성들의 죄악상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형식적인 예배, 선택받은 도시와 사람들의 부도덕성, 윤리와 도덕이 철저하게 무너진 정치 사회 전반을 소상히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마디로 호세아 당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저버린 사회였습니다. 한편 도덕성이 함몰되어 가는 이 사회의 모습과 더욱이 정치, 사회의 타락에 함께 오염되어 가는 현대 교회의 모습은 호세아의 외침이 이 시대를 향한 것임을 깨닫게 합니다. 실로 지금은 철저한 회개가 필요한 때입니다.

돌아키지 않는 이스라엘(8-16절)

누구나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 그 징계의 의미를 빨리 깨닫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곧 징계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음이 둔하고 교만한 자는 징계를 받으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곧 그들은 많은 징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는커녕 오히려 주변의 강대국을 의지하며 그들에게 나아감으로써 패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패망을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힘써 순종해야 합니다. 모든 우상을 버리는 철저한 회개와 순종만이 우리 삶을 가장 바르고 안전한 길로 이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 오늘 만난 하나님, 감사와 회개할 것, 오늘의 헌신(순종)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정리해 보세요 ✠

✠ 오늘의 기도 ✠

10월 4일
공과

사랑 받는 자

🎵 하나님 찬양하기

-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455장(통 507)
- 구주 예수 의지함이 5456(통 509)

마음 열기

한주간의 삶과 Q.T, 감사제목 등을 간단히 나누며 마음 문을 여세요.

말씀 열기

본문읽기 에베소서 5장1절에서 14절을 함께 읽습니다.

배경
이해하기

에베소서는 '교회'에 관한 책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예배당을 뜻하는 건물의 교회가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가 되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1-3장은 믿음의 내용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가 된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인지, 어떤 특권을 누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증거하고, 4-6장은 믿음의 실천으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특히 4:17-6:20까지가 더욱 그러합니다. 4:25-32에서는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말씀합니다. 이웃에게 참된 것을 말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일입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까지 이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증거합니다.

말씀
나누기

관찰과 묵상

관찰과 묵상 바울은 누구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하나요?(1절) 본 받아야 하는 모습은 무엇인가요?(2절)

💬 **적용과 나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만이 사랑이신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고 여기나요?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관찰과 묵상

3-7절에서 어떤 말을 하지 말라고 하나요?

💬 **적용과 나눔**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을 부립니다. 감사하지 못 하고 더러운 말과 어리석은 말 그리고 희롱하는 말을 합니다. 헛된 말을 하며 성도를 속입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다고 말하면서도, 위와 같은 말을 한다면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난 1주일간 한 대화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어떤 마음에서 그와 같은 대화를 했는지 나눠보세요.

말씀
다지기

8절부터 14절을 읽어보세요. 이제 여러분은 어둠이 아니라 빛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사랑받는 자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는 것은 말이라도 벗어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을 행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기도하기

1. 예수님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합니다.
2.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단하고, 이를 위한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10월 11일
공과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삶

🎵 하나님 찬양하기

- 보아라 즐거운 우리집 235장(통 222)
- 주 예수 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94장(통 102)

마음 열기

한주간의 삶과 Q.T, 감사제목 등을 간단히 나누며 마음 문을 여세요.

말씀 열기

본문읽기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15절을 함께 읽습니다.

배경
이해하기

골로새 교회 안에 복음을 방해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와 같은 일들을 강조하고, 천사 숭배와 금욕주의를 조장했습니다. 이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의 창조주요,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요, 교회의 머리이심을 선포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우월성과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대해 언급한 후(1~2장), 새사람을 입은 성도가 추구할 거룩한 삶을 진술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성도가 추구할 것은 '위의 것'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위의 것을 추구할 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말씀
나누기

관찰과 묵상

바울이 골로새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인들에게 알게 하기 원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1절)



적용과 나눔 바울은 골로새와 인근 교회 교인들이 사랑으로 결속되어 서로를 통해 격려를 받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고, 그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이단에 빠진 누군가를 구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나누어 봅시다.

관찰과 묵상

거짓 교사들의 간교한 주장은 무엇이며, 바울은 어떻게 반박하고 있습니까? (6-8절)



적용과 나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비밀이고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담고 계신 '그분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달리 표현하면,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그리고 지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 속에서 살아가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자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예수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세워가는 일을 끊임없이 계속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모신 사람답게 살고 있는지 서로 나누어 봅시다.

말씀
다지기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의지하며 살아야 할 우리에게, 세상은 예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계속 속삭입니다. 지식이든 돈이든 명예든 사람이든 무언가가 더 있어야만, 무언가로 더 채워져야만, 더 풍성한 안정감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 세상은 교묘하게 우리의 연약함을 파고들며 속삭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속임수임을 알아도 어느새 거부하지 못할 정도의 무기력함에 빠져들고 맙니다. 한 손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또 다른 한 손으로는 세상을 붙잡고, 그 어느 것도 놓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그런 우리에게 바울은 명령하고, 권면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린 그 삶을 잘 유지해 가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자신을 잘 세워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됩니다. 다른 곳에 마음을 두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만 마음을 두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두신 그 자리가 하나님이 거처 가게 하신 자리임을 믿고 일하십시오. 그리하면, 결코 짧지않은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보게 하실 것이고, 주님의 귀한 역사를 이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으로

기도하기

1.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알게 하시고, 교묘한 말로 속지 않는 주의 백성이되게 하소서.
2.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그 안에 뿌리를 내린 삶을 잘 유지해서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우리 자신을 잘 세워가게 하소서.

세상 나라를 다스리시는 거룩한 순찰자

🎵 하나님 찬양하기

-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86장(통 86)
-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마음 열기

한 주간의 삶과 QT 감사 제목 등을 간단히 나누며 마음 문을 여세요.

말씀 열기

본문읽기 다니엘 4장 1절에서 18절을 함께 읽습니다.

배경 이해하기

4장은 2장과 같이 왕이 꾸 이상한 꿈의 일로 인하여 일어난 신하들 사이의 경쟁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왕궁 안에서 왕의 꿈을 해석하는 일로 다시 한번 경쟁해야만 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2장과 4장은 내용적인 유사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4장에는 왕이 자신의 꿈 내용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바벨론의 술객과 박수들을 먼저 불러 꿈 해석의 기회를 주었으나, 그들은 꿈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바벨론의 마술적 지혜자들이 풀이하지 못한 왕의 꿈을 이번에도 다니엘은 해석할 수 있었는데, 왕의 꿈은 하나님의 계시였기 때문입니다. 왕은 이 일로 인하여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온 백성에게 알리기 위해 조서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마술적 지혜자들을 대신하여 왕의 꿈을 풀이해 내는 탁월한 꿈 해석의 능력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고, 왕은 겸손히 그 해석을 받아들여 다니엘의 하나님에게 감사의 찬송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본문에 ‘순찰자’라고 번역된 단어는 원어에 ‘깨어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즉, 잠을 자지 않고 깨어서 지키는 사람인데,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부리시는 천사로 해석됩니다.

말씀 나누기

관찰과 묵상

느부갓네살 왕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이유는 무엇인가요?(2절)

적용과 나눔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시며, 열방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왕들까지도 세우시며 다스리시며 주관하십니다. 높이 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십니다. 우리 역시 삶의 작은 영역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겸손히 설 것인지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교만에 설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선택의 결과는 늘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나는 경고와 회개의 메시지를 들을 때 즉각 순종하고 있습니까? 서로 나눠 보겠습니다.

관찰과 묵상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몽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18절)

적용과 나눔 하나님은 때로 꿈을 통해 죄를 깨우치십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통치 절정기에 꿈을 꾸고 번민에 빠집니다. 그의 꿈은 교만한 그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 매 순간 겸손히 낮아지는 삶이 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서로 나눠봅시다.

말씀 다지기

다니엘에게 거룩한 영(성령)을 부어 주시고 그분 뜻을 계시하십니다. 우리 삶이 그리스도를 본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져 그분이 통치하는 삶이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향해 움켜진 손을 펴서 필요한 것을 나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나의 작은 섬김을 통해 누군가가 회복될 것을 기대하며 그 나라를 위해 함께 지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진리가 필요한 사람, 생명이 필요한 사람, 위로가 필요한 사람, 때로는 회개의 경고가 필요한 사람에게 기꺼이 우리의 손을 펴서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오늘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기도하기

1.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아가지 않도록 다스려 주시옵소서.
2. 예수 그리스도께서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듯 우리도 자신을 비워 겸손함으로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이 되게 하소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 찬양하기

- 날 대속하신 구주께 321장(통351)
-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322장(통357)

마음 열기

한 주간의 삶과 QT 감사 제목 등을 간단히 나누며 마음 문을 여세요.

말씀 열기

본문읽기 다니엘 11장 1절에서 9절을 함께 읽습니다.

배경 이해하기

12장으로 구성된 다니엘서는 1-6장에는 4개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7-12장은 4개의 환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장의 네 사건은, 다니엘과 세 친구의 신앙의 결단(1장)과 느부갓네살왕의 2번의 꿈 해석과 풀무불 사건(2-4장), 벨사살왕의 성전기물 모독과 '메네 메네 테멜 우바르신' 문자 사건(5장),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사건(6장)입니다. 7-12장의 네 환상은 네 짐승의 환상(7장)과 숫양과 숫염소의 환상(8장), 70이레 환상(9장), 그리고 히테겔_티그리스 강가의 환상(10-12장)입니다. 그 중 10장이 히테겔 강가 환상의 서론이라고 한다면, 11장은 본문입니다. 본문은 1-2절은 페르시아제국의 4명의 왕에 관한 내용입니다.

말씀 나누기

관찰과 묵상

B.C 539년에 고레스 장군이 이끄는 페르시아 연합군은 바빌로니아 제국을 무너뜨렸습니다. 고레스 장군은 '다리오'라고 불리는 사람을 잠시 무너진 바빌로니아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이를 누가 도왔다고 하나요?(1절)

적용과 나눔 '내가'는 10:18에서부터 이어지는 '가브리엘 천사'를 의미합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미가엘 천사를 도왔다고 합니다. 이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바빌로니아와 메데바사가 싸우는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일상은 눈에 보이는 것들의 연속입니다. 하지만 그 위에 그리고 그 속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때로부터 2년 후에 유다백성들의 포로귀환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오묘하고도 신묘막측하게 진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미가엘 천사와 함께 페르시아 제국을 건국하게 했다고 합니다. 천사들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눈에 보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당신의 삶 가운데 당시에는 알지 못했지만, 세월이 지나고 나서 되돌아보니, 하나님의 역사였다고 고백 되는 일이 있나요? 그 일이 어떻게 당신을 새롭게 했나요?

관찰과 묵상

한 능력 있는 왕이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하며 그가 강성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하나요?



적용과 나눔 '한 능력 있는 왕'은 헬라제국의 알렉산드로스대왕을 뜻합니다. 그는 약관의 나이(20살)에 마케도니아에서 왕위에 올라서, 마케도니아와 헬라를 합병하고 5년 만에 페르시아제국을 무너뜨렸습니다. 그 다음에 두로와 애굽도 점령하고, 인도까지 진군했습니다. 그 때까지만 해도 그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 나라의 땅을 점령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온 세상을 파죽지세로 달리며, 점령했던 알렉산드로스대왕은 B.C. 323년 그가 왕위에 오른 지 13년 만인, 33세에 원정지에서 열병으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알렉산드로스대왕은 3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고, 그의 아들과 이복형제도 모두 암살되어, 그의 가문은 완전히 끊겼습니다. 그래서 헬라제국은 카산드로스(Kassandros), 리시마코스(Lysimachos), 셀레우코스(Seleucus), 프톨레마이오스(Ptolemaeos) 등 네 장군에 의해 4등분 되고 말았습니다. 알렉산드로스대왕은 큰 권세를 얻었고, 자기 마음대로 행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명과 권세가 오래 갈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요절하고, 제국은 4등분 되고 말았습니다. 내가 책임질 수 있고, 내 마음대로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반대의 결과를 낳은 예는 없나요?

말씀 다지기

알렉산드로스는 20살에 왕위에 올라 25살에 페르시아제국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는 유럽은 물론 아프리카, 아시아 지역까지 점령하며, 자신의 이름을 따서 '알렉산드리아'라고 명명했습니다. 아프리카 땅을 정복하고나서는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어서 바다를 바라보며 울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33살에 나이로 이 땅에서 영원히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가 열병으로 죽었다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세균에 의해 감염된 것입니다. 반면 다니엘은 10대에 볼모로 잡혀 와서, 80대가 될 때까지 바빌로니아 제국에서 페르시아 제국에서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향해 적국의 왕궁에서 호의호식한다고 손가락질을 당하기도 하며, 적국을 이롭게 하는 사람이라고 비난을 받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10대 소년이었을 때도 하나님 앞에 있었고, 80대가 되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유다 백성들이 바빌론에서 유다로 돌아가는 매듭이 풀리게 하셨습니다. 그를 빛나는 존재로 높이주시고, 그의 삶과 그가 받은 환상과 말씀은 성령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두 인물을 통하여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며, 우리의 길이 하나님의 길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이며,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기도하기

1. 내 삶 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 가운데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심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지도록 기도합니다.
2. 내가 아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평양 대부흥으로 이어진 1903년 원산 대부흥 운동을 일으킨

하디 선교사(1) (Robert A. Hardie)(1865~1949)

(한국 체류 : 1890~1935)(한국이름 하리영 선교사)

10살에 부모를 잃었지만, 이 세상에 아주 유익한 존재가 되겠다고 결심



로버트 하디 선교사는 1865년 6월 11일 캐나다 온타리오주 할디만의 감리교 집안에서 태어났다. 그의 나이 10살에 부모님을 모두 잃었고, 1884년 교사자격증을 취득해 2년간 학생들을 가르쳤다. 그 후 1886년 캐나다 토론토대학교의과대학에 입학하여 1890년에 졸업하고 의사가 되었다. 1886년 고향 친구 마가렛 켈리(Margaret M. Kelly)와 결혼했는데, “이 세상에 아주 유익한 존재가 되겠다”라는 삶의 비전을 공유한 부부였다.

캐나다 독립 선교사로 1890년 9월 30일

조선에 오다

하디 부부는 해외 선교를 위한 학생운동에 동참하였고, 자신의 세대 내에 복음의 불모지에 그리스도의 왕국을 전진시키기 위해 조선 선교를 결심하였다.

하디는 교단에 소속되지 않은 독립 선교사로 캐나다 토론토 지역 의대생들로 구성된 기독교청년회(YMCA)의 파송을 받아 1890년 9월 30일 부산에 도착했다. 이제 갓 복음이 전해진 조선에 할 일이 많음을 안 캐나다 출신 게일 선교사가 하디를 불러들였고, 하디 선교사는 게일 선교사와 펜윅 선교사에 이은 조선에 온 캐나다 출신 세 번째 독립 선교사였다. 로버트 하디가 내한했을 때는 제중원 원장

헤론이 이질로 사망(1890년 7월 26일)한지 두 달이 지난 때였고, 후임 의사 빈톤(Dr. C. Vinton)이 내한하기 전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로버트 하디는 빈톤이 내한하기까지 제중원에서 일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 1891년 4월까지 약 6개월 간 제중원의 임시 원장으로 일하였다. 그 후 영국인 세관원 헌트(J. H. Hunt)의 초청으로 1891년 4월 14일 부산으로 와 부산 세관 직원 전용 의사로 일하게 되었다. 이때부터 1892년 11월 18일에 부산을 떠나 원산으로 가기까지 19개월간 부산에서 활동하였다.

원산에 주재하면서 강원도 곳곳에 교회를 세우다

부산에 선교사가 많아지자 1892년 11월 18일에 부산을 떠나 원산으로 이주해 캐나다 출신 독립 선교사였던 펜윅 선교사의 방 하나를 빌려 시약소를 열고 환자들을 돌보았다. 게일과 펜윅에 이어 하디에게도 고향과도 같은 곳이었다.



하디선교사와 그의 가족

원산으로 이주한 하디선교사는 시약소를 운영하면서 CCM(The Canadian College Mission)의 지원으로 1893년 자신의 선교센터를 건립하였다. 그는 북부의 북청과 남쪽의 원주에 이르기까지 여러 곳을 여행하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직접 복음을 전하고 환자들을 돌봤다. 그러던 중 1898년 CCM과의 8년 계약을 마치고 미국 남감리회로 이적하면서 이듬해 개성으로 자리를 옮겨 남성병원을 설립하고 의료사역을 하였다.

1900년 12월 15일 원산으로 다시 파송받은 하디 선교사는 미국 감리회 선교

사 맥길(William B. McGill)선교사로부터 의료오하 복음 사역을 인수받고, 원산에 주재하면서 의료 선교 사역과 함께 신앙공동체를 순회하면서 교회를 설립하였다. 그 결과 1901년 강원도 김화군 지경터에서 장년 15명에게 세례를 주고 강원도 최초의 교회인 지경터 교회를 설립하였다. 1901년 10월 5일에는 현재까지 존재하는 강원도 최초의 교회인 양양교회를 설립했고, 이어 강릉 중앙교회를 설립하였다.

하디 선교사의 영적 좌절과 고민이 1903년 원산대부흥의 단초가 되다

1902년 제6차 연례회 보고서에 의하면 하디 선교사는 교인들의 영적 상태에 만족스러워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젊음을 바쳐 강원도 전역을 돌아다니며 교회를 세우고 의료사역을 다 한 하디는 조선의 교인들이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며 좌절하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 하디 선교사는 주일예배를 지키지 않는 세력교인은 물론 학습교인들에게도 징계를 하였고, 황령과 타락한 교인을 출교시키는 등 엄격하게 성도들을 다스렸다. 이러한 엄격한 그의 신앙지도 방법이 하디로 하여금 깊은 영적 좌절에 빠지게 하였지만, 역설적으로 하디 선교사는 1903년 원산대부흥이라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

(하디 선교사 이야기는 다음 호에 계속, 은상철 장로)

 **기도노트** 예배와 성경읽기를 하며 주신 기도제목들을 적어보세요